

패션에서의 마스크에 관한 의미 분석

정 정 희[†]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박사[†]

Analysis of the Meaning of Mask in Fashion

Junghee Jung[†]

Doctor's Degree, Dept. of Fashion Design, School of Art, Sungkyunkwan University[†]
(2022. 4. 15 접수; 2022. 6. 16 수정; 2022. 6. 20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various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masks and to consider what meanings they have in the recent fashion world. To this end, this study attempts to reflect on the internal meaning of masks exhibited in fashion designers' collections rather than functional meanings. It has an implication; in that it tries to help understand the expressive needs for variety and freshness pursued by modern fashion and use the unique design development to understand the internal meanings of masks. It, therefore, examines the existing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and data about masks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and also attempts to draw findings from the data of fashion collections which have been held since the 2000s, as well as from literature research based on books about fashion and various other media. The meanings of masks in the field of fashion are as follows: First, they express identity, by criticizing the couture fashion, through the fashion. Second, they present a new concept of body, showing an illogical and ambiguous identity in which both feminine and masculine images coexist. Third, they are media externally communicating insights about human beings' inner world, through which various messages are transferred to modern people who are attached to external appearances, and the identities possessed by designers are revealed by the masks. Fourth, they ask about a boundary between gender and sexuality, as a means to make us concentrate on the important social issue, while expressing various and new identities, like the hybrid identity. In other words, they can be found to be used as effective media in communicating fashion messages intended by fashion experimental and creative designers.

Key Words: fashion mask(패션마스크), critical means(비판적 수단), new body(새로운 신체), otherness(타자성), identity(정체성)

[†] Corresponding author ; Junghee Jung

Tel. *** - **** - ****

E-mail : j1728@nate.com

I. 서론

마스크는 시대마다 인간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화적 기호이며, 인류역사에서 마스크는 주술용, 의례용으로 신이나 조상의 얼굴, 동물 등의 형상으로 각 시대와 나라마다 전해져 내려온 민속적인 아이템이었다. 마스크에는 아시아 지역의 탈과 서양의 축제용 마스크, 보건의료장비용 마스크, 이슬람 지역의 의복과 함께 착용되는 페이스 베일(Face veil) 등이 포함된다. 현대적인 마스크의 출현은 20세기 이후 기능주의의 확산과 연관이 있다. 과거 사람이나 동물, 미스터리한 자연의 형상으로 표현되었던 마스크들은 현대 사회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해 방지를 중심으로 한 합목적적인 용도로 전향되어 모던하면서 추상적인 형태로 변화되었다. 오늘날에는 일상생활 및 특수직업, 특수상황의 등장과 그에 따른 필요성 및 목적에 의해 적합한 기능과 디자인으로 세분화된 모습(김형기 외, 2005)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마스크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다양한 재료와 형태로 변형되어 왔으며, 무용이나 연극, 영화와 같은 장르에서 뿐만 아니라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도 디자인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되어 독창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김선영, 2008). 오늘날 사회문화적 트렌드의 변화와 개인의 개성 및 취향이 반영되어 기능성을 토대로 한 마스크의 범위도 차츰 확장되었으며 패션디자이너들은 이러한 모던한 형태의 마스크를 이용한 개성 있는 컬렉션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실험적인 성향의 컬렉션에 자주 등장되는 마스크는 의상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가 하면 얼굴을 완전히 가려 객관적인 시각으로 의상을 보게 하는 등 패션 컬렉션에서 중요한 아이টে็ม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점차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마스크는 단순히 축제와 연극의 소도구나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목적의 물건에 그치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담론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마스크는 사회,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지만, 정작 이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패션디자인과 관련

한 마스크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마스크의 조형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한지연, 정경연, 2015; 최정화, 2015; 최정화, 2013; 김선영, 2008)나 기능성 마스크분석에 관한 연구(임효빈, 김지민, 2020; 손상희, 2018)와 마스크를 활용한 디자인 개발연구(김정윤, 염미선, 2018; 임형란, 이미숙, 2004) 등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패션에 나타난 마스크의 의미 분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팬데믹 시대의 마스크는 새로운 정체성이나 정체성 자체의 숨김이 아니라 매우 기능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마스크로서가 아닌 메시지를 표현하는 패션 디자이너들의 패션에서 보여 지는 마스크의 내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마스크의 시대별 변화양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알아보고 최근 패션에서 나타나는 마스크의 의미 분석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현대패션이 추구하는 다양한 새로움의 표현 욕구를 이해하고, 마스크의 내적 의미를 반영한 패션디자이너의 독창적인 디자인 전개 활용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주제인 마스크는 사실상 세계 모든 지역의 문화 안에 나타난다. 여러 지역 속에서 마스크는 인간의 생존과 변형, 유지 또는 정체성을 재창조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더불어 그들의 욕구와 도전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났다(Nunley et al., 1999). 따라서 먼저 마스크의 개념 및 마스크의 역사를 통해 시대별 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마스크의 유형을 의례용 마스크, 전통마스크, 보호용 마스크, 패션마스크로 나누어 분류하고, 마스크의 의미를 고찰한다. 셋째, 이론적 고찰을 비롯하여 패션컬렉션에서 디자인 사례를 통해서 패션에서의 마스크의 의미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을 도출해낸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이론적 고찰에서 마스크와 관련된 국내외 관련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의미 분석을 위한 사례 분석에서는 2000년대 이후의 패션 컬렉션 자료를 비롯하여 관련 연구논문, 패션 전문잡지, 패션서적 및 패션전문사이트 및 인터넷 자료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는 특히 신종 바이러스 출현, 자연 위협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인간 스스로 부주의에 의한 원자력 사고 발생, 아랍의 민주화 시위 등에 따른 생물학적, 자연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들이 미디어에 집중적으로 조명됨으로써 대중들의 신체에 대한 보호 욕구도 점차 증가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을 위한 사진 자료의 선정 범위를 2000년대 이후로 하였음을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1. 마스크의 개념 및 시대적 변화양상

1) 마스크의 개념

마스크라는 단어의 어원은 프랑스어 마스크(masque)와 이탈리아어 마스케라(maschera)이며, 이는 마귀라는 뜻의 중세 라틴어인 마스카(masca=마귀(Hexe))에서 유래하였다. 그 의미는 동물, 괴물, 또는 기형적인 것으로 '위조하기 위한 것' 또는 '변형하기'를 의미한다(김형기 외, 2005). 라틴어 이전 토속어인 maskaro 가 근원이며 Mascus의 유령, 유령처럼 보이는 얼굴이라는 뜻도 있다. 이태리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마술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불어에서는 1511년에 '가짜 얼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전경옥, 김영훈, 1999). 중세 이집트 왕국에서 이 단어는 msk 로서 가죽이나 '제 2의 피부'로 사용되었다가 결국 영어인 'mask'로 기입되었다(Nunley et al., 1999). 패션전문사전에서는 마스크의 개념을 얼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덮는 물건의 총칭으로 정의하고 있다(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1997).

마스크의 한자어를 살펴보면 '거짓 가(假)', '얼굴 면(面)'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 면구, 가면, 대면, 가두, 가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가짜 얼굴' 혹은 '거짓 얼굴'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말로는 광대, 초라니, 탈, 탈박, 탈바가지 등으로 불려왔다. 더 분명하게 구분하자면 얼굴 앞면만을 가리는 면구를 '가면'이라 지칭하며, 머리 전체나 뒷면까지 가리는 것을 가두, 가수나 투두 혹은 복면으로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의 가면극이나 일본의 가면극인 노오(能)에서는 대부분 얼굴 앞면만을 가리는 가면을 착용하고, 중국의 가

면극인 나희(儼戲)에서는 주로 가두를 착용한다(심우성, 1999). 얼굴을 가리거나 머리에 쓰는 것만이 가면이 아니라 가장의 필요에 따라 온몸을 가리기도 하고 따로 가장물을 만들어 늘리는 것을 모두 가면에 포함시켰다.

영어에서의 '탈', '마스크'는 '감춘다'라는 의미가 강하다. '탈을 쓴다'라는 것은 가장(假裝)을 하는 것이고, 변장(變裝)하는 것이다. 이것을 확대해석하면 남을 속이거나 위장(僞裝)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영어에서의 '마스크'는 이미 모습을 바꾸거나 감춘다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가 암묵적으로 감추어진다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지만 결국은 탈을 쓴 것이 분장을 한데 불과하다는 것이다(박진영, 2010).


라틴어로 마스크는 페르소나(persona)인데, 또 다른 용어로 '페르소나 아이템'이라고 칭할 수 있다. 페르소나 아이템은 '얼굴을 은폐하여 새로운 페르소나를 들어내는 도구'라고 정의할 수 있고, 마스크뿐만 아니라 탈, 베일 등 얼굴을 가리는 '레이어(layer)'를 말한다(박진희, 2008). 마스크는 아이덴티티를 바꾸거나 새로운 페르소나를 맡는 가장 오래된 고대의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마스크는 얼굴을 가려 새로운 페르소나를 창출하거나 혹은 어떤 위해로부터 얼굴 혹은 신체를 방호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최정화, 2013).

2) 마스크의 시대별 변화 양상

마스크는 인류가 등장했던 원시사회로부터 유래하여 오늘날까지 현존하고 있으며, 인간과 오랜 역사를 함께해 온 인간 생활상의 반영이자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문화의 가장 오래된 유산 중 하나인 최초의 마스크는 원시시대의 동물 마스크로 인간은 짐승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사료잡기 어려운 사나운 짐승을 유인하기 위해서 썼다. 이때 사용한 마스크를 수렵 마스크 또는 사냥 마스크(hunting mask)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쓴 인간의 모습이 구석기 시대의 프랑스 동굴 벽화 즉 레 트로와 프레르(Le Trois-Freres) (그림 1)에서 등장하였다. 최초의 마스크는 절대적인 존재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거나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소망에서 비롯되었으며

〈표 1〉 마스크의 시대별 변화 양상

시대구분	마스크 종류 및 특징	사례 마스크 및 디자인
원시 시대	동물 마스크 구석기 시대 수렵마스크 또는 사냥 마스크(hunting mask) _ 동굴 벽화(Le Trois-Freres)에서 등장	 <p>〈그림 1〉 Le Trois Freres, Hunting mask, 약 1만 5000년전 (출처: 사람들은 왜, 가면 뒤에 숨는가? (p.18) 정병훈, 2013, 서울: 씨넬북스(CLBooks).)</p>
	두개골 마스크(skull mask) 구석기 시대 _ 사슴의 전두골과 뿔로 이루어진 마스크 (제식용, 사냥용으로 사용)	 <p>〈그림 2〉 Mummy mask, BC 1350 (출처: 마스크-투탄카멘에서 할로윈까지 (p.39) Mack, J., 1994/2000, 서울: 개마고원.)</p> <p>〈그림 3〉 Masque funéraire de Toutankhamon, BC 1361~BC 1342 (출처: 게이트웨이 미술사 (p.303) DeWitte, Debra J., 2013/2017, 파주: 이봄.)</p>
고대 (BC 3000-AD 4C)	장례식 마스크(death mask) 이집트 평민: 미라 마스크(Mummy mask) (BC 귀족: 투탄카멘의 황금마스크(Masque funéraire de Toutankhamon) 3000-BC 525) _ 인간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생전 모습이 담긴 마스크	 <p>〈그림 4〉 Drama mask, AD 1~2세기 (출처: 마스크-투탄카멘에서 할로윈까지 (p.61) Mack, J., 1994/2000, 서울: 개마고원.)</p>
중세 (AD 5C-15C)	새부리 마스크(페스트 의사 마스크) _ 의사들이 돌림병에 전염된 환자를 돌볼 때 착용	 <p>〈그림 5〉 Medico della peste mask (출처: 새 부리 가면을 쓴 의사와 이발소 의사 (p.148) 쉰상하오, 2015/2017, 서울: 시대의창.)</p>
근세 (AD 16C-18C)	하프 마스크(half mask) 16C _ 연극, 가장무도회에 사용	 <p>〈그림 6〉 Maria Theresia, Half mask, 1744 (출처: 아름다운 것들의 역사 (p.263) 유아정, 2018, 서울: 에이엠스토리(amStory).)</p>
	전면 마스크(face mask) 16C말-17C전 - 블랙의 벨벳, 실크 또는 종이로 만든 마스크로 부유한 여성들이 여행을 갈 때 착용	
	하프 마스크(half mask) 16C-18C _ 사교모임, 연극, 가장 무도회에서 착용	

시대구분	마스크 종류 및 특징	사례 마스크 및 디자인
현대 (AD 20C-)	방호 마스크_스포츠와 같은 격렬한 운동에서 착용 의료용 마스크_수술 시 병원에서 사용 방독 마스크_유독가스의 흡입을 막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사용 화재진압용 마스크_화재 시 소방관이 착용 일회용 마스크_일상에서 흔히 쓰이며 호흡기를 덮는 위생용품으로 사용 축제용 마스크_축제에서 변장의 용도로 사용	 <p data-bbox="896 511 1260 539">〈그림 7〉 방독 마스크</p> <p data-bbox="896 542 1260 570">(출처: http://www.sgsafety.net.)</p>

구석기 시대 때부터 사람이나 동물 등의 얼굴 모양을 본떠 얼굴에 쓰는 마스크는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왔다. 신석기 시대의 마스크는 사슴의 전두골과 뼈로 이루어진 두개골 마스크(skull mask)로 동물을 사냥하고 제사를 지내는 제식용, 사냥용 등의 용도로 쓰였다(김형기 외, 2005).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의 삶이 있다고 믿었기에, 인간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생전 모습이 담긴 마스크를 덧씌웠으며, 완전성의 상징인 순금으로 된 마스크를 만들어 파라오(Pharaoh)의 시신에 씌움으로써 떠나갔던 영혼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영생의 삶을 염원하였다. 다시 말해 이집트 마스크는 미라를 치장하기 위한 도구로서 평민은 대량으로 만들어 파는 나무로 만든 미라 마스크(mummy mask)〈그림 2〉를 주로 이용했지만 왕족이나 귀족은 값비싼 마스크를 맞추었는데 이로 인해 유명한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Masque funéraire de Toutankhamon)〈그림 3〉가 나오게 되었다. 마스크는 고대 그리스·로마 때에는 연극이나 무용의 분장 도구로의 역할을 했으며 배역의 종류를 나타내고 캐릭터를 정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Mack, 1994/2000). 〈그림 4〉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로마의 비극 마스크(drama mask)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들의 등장을 구현하고자 제사 때 상연하는 연극에서 마스크를 사용하여 인간이 지닌 힘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였다(김형기 외, 2005). 이러한 점에서 선사 시대 및 고대의 마스크는 기독교에서의 십자가, 불교에서의 염주와 같이 신앙이나 종교의 상징물로 사용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카니발이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축제의

유희성을 띤 메인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박진희, 2008). 중세 유럽에서는 의사들이 돌림병에 전염된 환자를 돌볼 때 장갑과 망토를 착용하고 새 부리 마스크〈그림 5〉를 써서 전염을 방지했다고 한다(우상하오, 2015/2017). 5세기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시작된 중세 그리스도교의 전파는 토속 신앙을 이단으로 간주하여 이를 배척하고자 하였으며, 이로써 마스크는 주술적 기능, 상징물로서의 힘을 잃게 된다. 이러한 종교적 억압 속에서도, 마스크는 축제의 도구로 등장하여 이어지면서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연극, 가장무도회 등에서의 하프 마스크(half mask)〈그림 6〉 형태로 명맥을 이어나가며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현실에서의 속박으로부터 탈피적 능력을 지니게 된다(김형기 외, 2005).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전까지 블랙의 벨벳, 실크 또는 종이로 만든 전면 마스크(face mask)는 상류층에만 허용되었으며 부유한 여성들이 여행을 가거나 경우에 따라 쓰고 다녔다. 이 마스크는 날씨로부터 보호하고 창백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사용되어 햇볕에 탄 노동자와 일하지 않는 여성사이의 사회적 구분을 분명하게 하였다(Baan et al., 2007).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마스크가 지니는 상징성과 표현양식이 극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자 새로운 의미를 지닌 현대적 가면극이나 무용작품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되었으며(박진영, 2010), 일상에서는 특별한 직종 혹은 천직과 연결되어 육체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모던한 마스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현대의 마스크는 스포츠와 같은 격렬한 운동에서 착용하는 방호마스크, 수술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스크, 유독가스의 흡

입을 막기 위한 산업현장에서의 방독마스크(그림 7), 화재 시 소방관이 착용하는 화재진압용 마스크를 비롯하여 일상에서 흔히 쓰이며 호흡기를 덮는 위생용품으로서의 일회용 마스크와 축제에서 변장의 용도로 쓰이는 축제용 마스크 등 목적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마스크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변장하게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하게 하며 인간과 세계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구성하고 규칙을 위반하며 그것을 파괴하도록 함과 동시에 현실을 새로이 구성하고 생산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이상의 마스크의 시대별 변화 양상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2. 마스크의 유형 및 특징

마스크의 유형을 크게는 유형의 마스크(mask)와 무형의 마스크(persona)로 나눌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형의 마스크를 중심으로 축제나 제사 및 벽사 등을 위한 의식과 행사에 사용하는 마스크인 의례용 마스크, 지역과 민족별 전통 마스크, 생물학적·화학적 환경과 위해로부터 얼굴과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마스크인 보호용 마스크, 그리고 패션 컬렉션에서의 패션마스크로 분류하였다.

1) 의례용 마스크

의례용 마스크는 크게 신앙(주술) 마스크와 예능(예술) 마스크로 나눌 수 있다.

신앙(주술) 마스크는 의식용 마스크(ceremonial mask), 장례식 마스크(death mask), 입회식 마스크(initiation mask) 등이 있다. 의식용 마스크는 사람들이 호신과 위협의 목적으로도 착용하여 악령이나 악귀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위해 사용한다. 이것은 자신을 위장하여 오히려 적을 위협하는 힘을 부여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박진희, 2008). 이집트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는 죽은 영혼을 붙잡아두기 위해 죽은 사람의 얼굴에 씌우거나 분묘의 내벽에 거는 장례식 마스크(death mask)을 사용했다(엄세인, 2005). 북아메리카 젊은이들은 비밀결사체 집단의 입회식 마스크가 사용되었다(Anawalt, 2007/2009). 이와

같이 의례용 마스크는 마스크의 특성 중 상징성과 익명성을 띠다고 할 수 있다.

연극, 무용, 축제에서 사용되는 마스크는 예능(예술)마스크로 분류된다. 주술적 목적에서 사용되었던 마스크는 문화의 발전과 함께 인간이 인간과 자연 또는 인간과 신의 문제를 주술로 해결하던 주술마스크의 단계를 넘어, 인간과 인간의 문제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예술마스크가 생겨났다. 주술의 해결 기능이 창조적 표현 기능으로 변화되면서 마스크도 주술마스크에서 예술마스크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전경옥, 2017). 이러한 마스크는 다양한 미술운동 장르 안에서 인간의 두려움, 열망, 숨겨진 욕구를 표현하는 예술의 한 테마로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제임스 앙소르(James Ensor)의 <성난가면(The Strange Masks)>(1883)에서 카니발은 현실, 정치, 사회적 상황을 뒤집어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폭로하는 대안적 세계, 무정부주의적 세계를 뜻한다. 앙소르는 비판적인 현실과 비현실적인 세계를 넘나드는 매개물로 마스크를 모티프로 선택한 것이다(문나리, 2009). 그 외 아프리카 부족 마스크의 형태와 장식은 피카소(Picasso)와 마티스(Matisse)와 같은 예술가들을 매혹시켰는데, 이것은 현재 그들의 원시주의 작품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분명히 보여 진다.

2) 전통마스크

마스크는 그리스, 이집트 같은 고대문명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멜라네시아 등의 원주민 사회와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마스크를 크게 서양의 축제마스크와 동양의 탈, 중동의 페이스 베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서양의 마스크는 원시시대의 마스크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차이점을 보면 형태적인 면에서 원시마스크에 비해 사실적인 표현을 하였고 내용적인 면에서 주술적인 의미가 아닌 생활의 여유를 줄 수 있는 연극이나 축제에 사용되어지는 등 오락성을 띤다. 그러한 오락성 때문에 현대까지도 많은 나라에서 카니발(carnival)과 할로윈(halloween) 축제 때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다. 가

장 유명한 마스크 축제인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니발이나 프랑스 니스 카니발 등 유럽에서 펼쳐지는 주요 카니발은 원래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에서 유래했다. 마스크를 쓰고 축제를 즐기는 동안 공동체의 일원, 곧 동질적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공동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이상이나 이해가 공유되는 성격 때문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날카로운 풍자를 통하여 현실을 비판하기도 하며, 극복된 꿈을 현실적으로 구가한다(임형란, 2004).

동양의 마스크 중 중국의 마스크인 ‘나’는 오랜 상고로부터 행해진 원시 종합 양식으로서 풍년을 경축하고 신과 농경을 관리하는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납제가 있고, 연말 거행하는 악귀와 역병을 몰라내는 ‘나제’가 있다. 표현양식을 보면 형식성에 대한 강조, 복잡함속에서 나타나는 질서, 그리고 기술면의 완벽한 특징을 보인다.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머리 부분과 얼굴 부분을 모두 이용해 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표현한다(엄세인, 2005). 일본 마스크는 전통적인 일본 춤과 극에 나오지만, 축제 때 즐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이때는 절제된(외적) 인격, 즉 페르소나를 벗어 던질 수 있는데, 익살스런 인물의 마스크를 쓰면 평소 남들 앞에서 행동할 때 몸을 사리게 했던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잠깐이지만 평범한 현실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로 들어가 맘껏 자기 속에 내제되어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표출하고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하는 일본인들의 바람을 내포하고 있다. 19세기 일본의 축제에서 사용된 전설 속의 사자를 나타낸 시시 마스크가 대표적이다(엄세인 2005). 샤머니즘, 해학과 풍자로 설명할 수 있는 한국의 탈은 놀이와 제의에 사용되어 왔는데, 이 모든 활동 속에는 액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민간 신앙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후기 서민들의 의식이 깨기 시작하면서 마스크는 양주 별산대놀이, 봉산탈춤, 동래야류, 통영오광대, 북청사자놀이 등 다양한 놀이와 공연, 극을 통해 양반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신세정, 2004). 다시 말해 현실의 억압된 상태를 가면극이라는 매체를 통해 풍자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당시의 사회상을 나타낸다. 이는 비판정신이자 부정적인 풍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슬람 문명의 발생지인 중동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는 베일의 착용이 엄격한 나라로 히잡(hijab)이나 얼굴만 가리는 페이스 베일인 니카브(nikab), 전신의복이면서 눈 부위도 얇은 망으로 가리는 부르카(burqa) 등을 착용하였다. 니카브은 무슬림 여성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숨기기 위하여 착용하는 얼굴용 가리개이다. 차도르(chadors)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용도로 쓰이지만 별도로 눈가리개와 머리카리개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니카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무슬림의 극단적인 베일형태로는 부르카를 들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아라비아반도 일부와 베두인족 일부 여성들이 입는 부르카는 얼굴까지 가리는데다가 겨우 ‘뺨’을 볼 수 있는 눈 부분마저 망사로 만든 의상이다(권현주, 2017). 이와 같이 무슬림 베일의 통칭으로 사용되는 히잡은 아랍.이슬람세계에서는 정체성 구현의 상징으로, 서구의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그리고 정치적 정의의 부재와 독재 정치에 항거하는 ‘저항’의 기제로서 사용되었다(조희선, 2001).

3) 보호용 마스크

보호용 마스크에는 여성 혹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피부보호 목적으로 자외선 차단용 마스크가 있다. 겨울에는 두터운 소재 혹은 열을 보존하는 기능의 방한 마스크,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대기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필터 혹은 공기밸브가 장착된 공기정화 마스크, 황사 마스크, 필터 마스크 또한 이에 해당한다.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마스크에는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일회용 마스크와 산업현장에서 쓰는 산업용 마스크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용 마스크에는 방독면이 있고 이는 유독가스를 깨끗한 공기로 걸러 외부 환경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한다. 산업 현장에서 금속 가루나 분진에 대해 호흡을 보호하기 위한 방진마스크와 눈을 보호하기 위한 고글형 마스크, 용접 마스크, 투명마스크(face shield) 등이 있다. 또한 스포츠나 레저 활동에 사용하는 마스크 또한 보호용 마스크라 할 수 있다(김정운, 염미선, 2018). 스포츠에서 쓰이는 방호면, 전쟁에서 쓰이는 투구와 방독면은 비록

변장과 가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마스크는 아니지만 이 역시 얼굴의 일부를 덮고 가리는 것으로서 광범위한 의미에서 일종의 마스크라 지칭한다(유하나, 2015).

4) 패션 마스크

마스크가 재현한다면 변장(disguise)은 숨기고 은폐하며 자신이 아닌 어떤 것으로 통한다. 하지만, 가장(masquerade)은 착용자에 관한 하나의 진술로서 유쾌하고 과도하며 때때로 전복적이다. 마스크는 부분적으로 가리며, 변장은 전체를 가리고, 가장은 의도적으로 가린다. 마스크는 넘지시 알려주며, 변장은 시야에서 지워버리고, 가장은 과장한다. 마스크는 하나의 장신구이며, 변장은 하나의 초상(portrait)이고, 가장은 하나의 캐리커처이다(Tseëlon, 2001). 사전적 정의에서도 '변장'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모두에 나타난다. 이러한 개념들이 수세기에 걸쳐 변형되었지만, 비판적인 문화 분석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Tseëlon et al., 2014).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패션 마스크는 카니발 또는 연극에서 착용의 기능이 강조되어 의상 컨셉에 도움이 되는 장식적인 효과나 착용자의 가장을 위한 정체성 표현의 도구가 되어왔다. 따라서 가장은 구조와 정체성에 대한 비판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액세서리는 패션 코디네이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은 컬렉션에 의상과 액세서리를 코디네이트시켜 발표하고 있으며(임경순, 유송옥, 1997), 마스크 역시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장식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그림 8>과 같이 하프 마스크 그 자체를 얼굴에 씌워서 의복의 분위기와 특성을 살려주는 경우도 있고, 마스크를 목걸이나 귀걸이 혹은 머리띠나 모자, 장식핀 등에 이용함으로써 의복의 장신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의복의 디스플레이에 마스크를 사용하기도 해서 옷을 입은 마네킹의 얼굴을 마스크로 나타내어 색다른 장식효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현대 패션에서 화려한 장식 마스크의 사용은 인간 본연의 미적 표현 욕구인 동시에 억압적이고 제한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내면세계를 간

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픈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선영, 2008).

특히 1990년대 이후 패션컬렉션에서는 패션디자이너의 창의성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모델의 얼굴을 완전히 가려 객관적인 시각으로 의상을 보게 할 수 있는 마스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패션쇼 피날레에 등장하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철저히 알리지 않는 디자이너로 알려진 메종 마르 지엘라(Maison Margin Margiela)는 1995년 F/W 컬렉션에서 기존 패션쇼가 열리는 장소를 탈피하여 서커스 공연장을 무대로 통해 보여주었다. 마르지엘라는 복면형 마스크(face mask)(<그림 9>)를 모델에게 입히고 컬렉션을 진행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디자이너로서의 이미지를 고착시켰다(한지연, 정경연, 2015). 마스크는 오랫동안 마르지엘라 브랜드의 특징적인 부분을 형성해왔는데, 이것은 이 디자인 하우스의 악명 높은 개인 설립자의 신분을 숨기고 있는 성격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은 터키 태생으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공유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의 고유한 특성을 어필하는 다문화적 코드를 표현하고 있다. 동·서양 문화의 결합은 1998년 <사이(Between)> 컬렉션(<그림 10>)에서 다양한 길이의 차도르를 입은 모델의 무대 등장을 통해 강렬하게 제시되고 있다(Twist, 2005). 첫 번째 모델은 나체에 그녀의 얼굴만 베일의 형태인 야슈마크(yashmak)로 가리고 등장하고 연이어 등장하는 모델들은 그들의 몸을 점차적으로 많이 가려지는 형태의 차도르를 입고 등장한다. 이는 이슬람교가 의복으로 여성을 구속한다는 개념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종교(Muslim)와 공간 개념을 인체에 어떻게 관련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의복으로 표현한 것이다(장애란, 2002). 즉 얼굴을 가리는 베일에 대한 패션의 자체적인 비판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마스크는 기능적 역할을 넘어 의사 표현의 수단 혹은 패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술에서의 마스크는 현실을 폭로하기위해 마스크를 하나의 모티브로 사용하였으며, 서양의 마스크는 축제를 통해 풍자를 통한 현실을 비판하였으며, 동양의 탈은 가면극을 매체로 양반사회



〈그림 8〉 Issey Miyake, half mask, 1988

(출처: 이은정(1990), p.40.)

〈그림 9〉 Maison Margin Margiela, face mask, 1995 F/W

(출처: Maison Martin Margiela (p.189)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 2009, NY: Rizzoli.)

〈그림 10〉 Hussein Chalayan, veil, 1998 S/S

(출처: Fashion and Accessories (p.169) Baan et al., 2007, Arnhem: ArtEZ Press.)

에 대한 통렬한 비판의 수단이 되었다. 또한 중동의 베일은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의 기제로서 사용되었다. 패션에서 마스크는 구조와 정체성에 대한 비판의 한 형태로서 하나의 매개체로서 사용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3. 마스크의 의미

과거의 마스크가 바람이나 풍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현대의 마스크는 유희적이고 만화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유형의 마스크에는 기원, 풍자, 유희 등의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최은하, 2006).

마스크의 본래적 의미는 첫째, 인간 한계를 넘어선 '신성성(Heiligkeit)'을 획득하는 것이다. 마스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화해할 수 없는 두 개의 극단을 연결시켜주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대면하게 해주는 매개물로 기능한다. 마스크는 원시 문화가 지배적인 시대에서 벗어나 문명이 어느 정도 발달된 시대에서도 신의 세계와 인간과의 교감의 미디어로서, 각 민족 특유의 것이 사용되었다. 러시아 철학자 바흐틴(Mikhail Bakhtin)의 말대로 마스크가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세계는 악마적이고 내면적 세계이다. 지옥세계와 마스크의 관계는 원시 및 고대 종교 문화에서 마스크에 부여한 신성함의 의미로 나타난다.

둘째, 전도와 은폐를 통한 '타자성(Otherness)'을 획득하는 것이다(유럽사회문화연구소, 2006). 타자성을 드러내는 것은 본래의 모습을 가린다는

차원을 넘어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또 다른 삶이 양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마스크는 사람이나 동물의 얼굴 모양을 만들어 주로 얼굴에 착용하여 분장할 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얼굴을 가리는 특이한 조형물로 특정한 목적과 용도,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얼굴을 감출 뿐만 아니라 주체를 분열시키고 본래의 얼굴과는 다른 인물이나 동물, 또는 초자연적인 존재 등을 표현하는 타자성을 갖는 도구로서 사용된다. 이와 같이 마스크는 감춤과 표상의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셋째, 마스크를 통해 자신을 다시 한 번 감추게 되는 이중적 '가장성(disguise)'의 획득이다. 마스크는 불투명성, 비 일상성, 탈 개인성, 익명성의 속성을 지니고 신화적 대 탈신화적이기도 하고 자연적 대 비자연적인 욕망을 드러내며 위장과 변신, 위반과 배출, 분리와 은폐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한다(김형기, 2005). 장-루이 베드안(Jean-Louis Bedouin) 역시 마스크에 각인되어 있는 특징은 마스크가 자기를 숨긴 다기보다 기꺼이 드러내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자기로부터 덮개를 벗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마스크를 통해 자신을 다시 한 번 감추게 되는 이중적 가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마스크의 가장으로 인한 이중성에 대해 구조주의 프랑수아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 Levi-Strauss)는 그의 저서 〈가면의 길(La voie des masques)〉에서 마스크는 일차적으로 그것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형시키는 것, 다시 말해 의도적으

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넷째,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변화된 '정체성(identity)'의 획득이다. 마스크 착용은 그 착용자를 놀랍도록 다르게 변화시키고 그들의 두려움과 열망 욕구를 드러나게 하고 착용자의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현대사회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마스크 착용 그 자체로 착용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감추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 패션에서는 마스크 디자인이 증가하고 있다. 큐레이터인 카라 매카시(Cara McCarty)는 세인트루이스 아트 뮤지엄(The Saint Louis Art Museum)에서 1999년 열린 <마스크: 문화의 얼굴(Mask: Faces of Culture)> 전시 인터뷰에서 왜 인간은 늘 마스크를 사용해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일상의 평범함이 아닌 것이 되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며 마스크 착용은 그 착용자를 놀랍도록 다르게 변화시키고 그들의 두려움과 열망 욕구를 드러나게 한다고 주장했다(Miller, 1999).

Ⅲ. 패션에서의 마스크의 의미 분석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판의 한 형태로서 하나의 매개체로서 사용되어진 패션에서의 마스크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의복은 실용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패션은 지위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의복은 사람들이 옷을 입고 패션은 제도적으로 구성되고 문화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어떤 사회나 문화에서 발견된다. 패션 시스템은 의복을 상징적인 가치를 지닌 패션으로 전환시키고 의복을 통해 발현된다. 패션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문화적, 조직적 맥락에서 존재한다(Kawamura, 2004). 따라서 의복을 단순히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옷보다는 메시지이다(Bonnie, 2011). 특히 크리티컬 패션은 유용성보다는 메시지 중심의 은유적 패션으로서, 패션을 통한 신분과 계급 등을 표현하기 위한 유용성의 강조보다는 사회비판적인 메시지 중심의 패션을 말한다(정정희, 임은혁, 2019a). 다시 말해 탐색적이고 지속되는 문화적 비판을 풍부하게 담아내고 주류예술의 비판성이 패션으로 이전된 예술의 비판적 기능이 스며든 패션이다. 크리티컬

패션은 자기인식과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의복의 구성과 제작, 인체미, 패션산업 시스템, 패션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기존의 패션시스템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새로운 미학과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다(정정희, 임은혁, 2019a). 이에 크리티컬 패션의 메시지 유형에 기반한 작품 중 유형의 마스크를 매개체로 하고 있는 작품 위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1. 패션산업 시스템에 대한 도전

패션산업 시스템에 대한 도전은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패션산업 시스템을 재정의 하고 재조정하고자 하는 도전의 메시지(정정희, 임은혁, 2019b)로서 마스크를 통해 쿠티르를 비판하면서 패션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1) 쿠티르를 비판하면서 패션의 정체성을 표현

영국박물관 민족지학부의 책임자인 존 맥(John Mack)은 마스크는 변화와 성장을 갈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가장 즉흥적으로 낚아챈 일종의 매체로서 마스크의 다양한 양식들은 외모와 정체성의 변화를 갈구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발현시키는 상징적 힘(Mack, 1994/2000)에서 나왔다고 언급하였다. 무엇보다도 마스크는 얼굴을 가리는 것인 만큼 정체성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최은아, 2020). 마스크는 본래의 몸을 지우고 또 다른 존재로 비약하거나 현세의 얼굴이나 육체를 대신해 초월적인 존재로 비상하고자 하는 욕망의 산물이다(박진영, 2010). 메스닐(Mesnil)과 네이피어(Napier)가 지적한대로 마스크가 갖는 기본적인 힘은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메커니즘, 정체성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그것을 고정시키는 능력에 있다. 달리 말해 마스크는 개인의 정체성을 감춤과 동시에, 개인의 정체성을 다른 무엇인가로 변형시킨다. 마스크는 세상이 양극단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보는 세계관의 반영이다. 마스크는 항상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 성격의 유형과 행동을 도식화한다.

패션 컬렉션에 선보이는 마스크들은 얼굴의 하단 부분인 입을 가리는 형을 넘어서 독특한 변형

된 형태로 개성 및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단순히 컬렉션의 주제를 살리거나 디자이너의 취향에 따라 연출되던 마스크는 2006 F/W 파리 컬렉션에서 역동적이며 강렬하고 구조적으로 연출된 마스크들로 특히 대두되었다. 마스크의 시각적 효과는 보조 장신구의 수준을 넘어 하나의 트렌드로 대두되었는데 빅터 앤 롤프(Victor & Rolf),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의 모델들 얼굴이 모두 마스크로 가려졌고 이들은 모두 신비하면서도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림 11>은 빅터 앤 롤프의 작품으로 귀족 스포츠인 펜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모델들의 얼굴에 모발과 금속을 꼬아 만든 격자무늬의 마스크(net-like masks)이다. 일반적인 마스크 소재가 아닌 파격성을 드러내며 물리적인 방어의 역할로서의 기능성을 왜곡하고 성적 은밀함을 드러내며 페티시즘을 연상시킨다. 빅터 앤 롤프는 2006년 가을 벨기에 매거진(Flemish magazine) <Weekend Knack>에서 '쿠튀르, 모자와 베일의 매너리즘에 대한 언급이었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베일을 헤어스타일의 일부인 것처럼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전 쇼 동안 이 패션 듀오는 모델들의 머리를 헬멧에 감추거나 검은색으로 칠했다. 디자이너들에 따르면, 얼굴들이 가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옷을 더 많이 보게 되었다고 한다(Baan et al., 2007). 즉 물질 본연의 의미가 대체되거나 바뀌어 표현된 패션마스크라고 볼 수 있다. 얼굴을 보호하고자 운동용으로 고안된 펜싱마스크가 드레스에 코디네이션 아이템으로 착장되어 유희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인체의 재정의

인체의 재정의란 디자이너들이 패션시스템에서 정해 놓은 미의 기준에 대한 도전의 메시지(정정희, 임은혁, 2020)로서 마스크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신체, 새로운 정체성,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 1) 모호한 성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개념의 신체를 표현

신체와 옷을 통해 표현되는 규범과 일탈의 이상에 대해 질문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장 분명하게 다루는 현대 디자이너와 공연 예술가들로는 Henrik Vibskov, Gareth Pugh, Nick Cave와 Bernhard Willhelm이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실험적인 패션은 Leigh Bowery, Rei Kawakubo, Martin Margiela 와 Walter Van Beirendonck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Atopos et al., 2011).

패션디자이너들에게 마스크는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규범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창조성의 발현체이기도 하다. 2006 F/W 컬렉션에서 카니발 마스크를 선보인 레이 카와쿠보는 <스타일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앞에 드러난 것과 뒤에 숨겨진 것 즉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자아와 그 뒤에 숨겨진 모습을 동시에 표현하려 했다고 밝힌 바와 같이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고대신화나 동물, 원시적인 이미지, 초현실적인 형태의 마스크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탈주이자 기존질서에 대한 비판을 표현하며 패션디자인에 그 자체로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림 12>는 레이 카와쿠보의 2006 F/W 컬렉션으로 남성복과 여성복의 결합에 영감을 받아서 여성적인 디자인에 남성복의 소재와 중절모, 그리고 하프 마스크를 코디네이션 함으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표현하였다. 이것은 마스크를 이용하여 성에 대한 기존질서에 대한 비판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틴 마르지엘라는 1993 S/S 컬렉션에서의 면소재의 모슬린 베일에서부터 2009 S/S 의 스타킹스카프 및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에 이르기까지 과거 여러 프레젠테이션에서 각각 패브릭, 메이크업 및 모발이 모델의 정체성을 보호하는데 사용되었다. 2008 S/S 컬렉션에서는 무대와 모델을 모두 블랙으로 통일시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뒤로 숨겨버리고 아방가르드하게 제작된 은색의 조형적인 재킷만을 노출시켰다(그림 13). 마틴 마르지엘라는 베일로 얼굴을 모두 감싸서 드러나지 않는 모델을 컬렉션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옷에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톱 모델에 대한 예찬을 거부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2009-10 F/W 컬렉션에서 보여준 복면형 마스크(face mask)<그림 14>를 쓴 모델에서는 하나의 신체에 의복의 안과 밖, 여성과 남성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는 비논리적이고 모호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성’ 혹은 ‘앤드로지니’의 개념을 초월하는 ‘다중정체성’ 혹은 ‘non-identity’로 정의의 모호함을 불러오는 새로운 개념의 신체이다. 현실에서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성적 개념이 하나의 신체에 존재하는 것은 상반된 이미지가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 모호성을 유발한다(김순자, 2016). 이와 같이 마르지엘라가 보여주는 비실제적이고 추상적인 존재들은 외형적으로 모호할 뿐 아니라 존재자체의 모호함을 드러낸다. 마르지엘라는 무한한 상상력으로 현실세계에서 실현 불가능한 초월적인 존재를 창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존재는 신체 개념과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하는 것으로 주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2) 인간 내면에 대한 통찰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의 표현

마스크는 고의로 인간의 용모를 일그러뜨리고 캐리커처를 만들어 내어 얼굴을 새롭게 조형하며 이러한 마스크의 착용은 중성화된 얼굴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신체사이에 대립을 가져온다(김경희, 이옥희, 2002). 패션컬렉션에서 연출된 마스크는 모델의 표정연기와 몸짓표현을 정지시키고 모델의 신체와 착용한 의상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게 되기도 한다. 현대에 와서 다양한 재료가 등장함에 따라 마스크의 그로테스크한 표현이나 양식화, 강조 등 다양한 표현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 볼프강 카이저(Wolfgang Kayser)는 마스크의 그로테스크 효과는 마스크를 통하여 놀라게 하고 바로 안도의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유럽정보문화센터, 2003)이라고 하였다. 이 그로테스크의 기능은 믿음을 상실하고 비인간적으로 소외되는 세계에 대한 놀라움과 새로운 체험을 맞이하는 사회 현실에서 파악할 수 있다(유럽정보문화센터, 2003). 일상의 진지함에서 해방되어 풍자적 요소로 비판적 사회인식을 이루는 것으로 그로테스크 마스크는 공포감을 체험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순간적인 공포에서 현실로 들어오면서 안도하게 되면서 그 상황을 즐기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퍼포먼스 아트에서 보여지는 패션은 그

로테스크한 이미지로 만연하다. 그로테스크 바디는 경계의 혼종성(hybridity)과 경계의 위반 뿐 아니라 패러디, 유머, 그리고 도치로 정의되며, 현대의 실험적인 패션 디자이너와 패션과 퍼포먼스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의 큰 핵심이 되고 있다. 오늘날의 이러한 장르 간 모호함을 급진적으로 이끌었던 아티스트로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실험적인 퍼포먼스 아티스트이자 아방가르드 패션 디자이너로 활약한 리 보워리(Leigh Bowery) (Atopos et al., 2011)가 있다. 보워리는 메이크업 뿐 아니라 액세서리나 마스크를 사용하여 새로운 페르소나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15〉은 러플로 뒤덮인 기괴한 머리 장식과 스트레치 라이크라 패브릭에 의해 표현된 불룩한 배 모양의 임신한 여성의 도상이다. 보워리는 이 작품을 통해 여성의 아브젝시옹(abjection)을 불쾌한 형상의 기호체계로 제시하는데 이는 이상화되지 않은 비천한 신체로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이처럼 비정형화된 여성의 왜곡된 신체 이미지는 억압된 내면의 심리세계를 상징적으로 표출하여 기호 상징체계로서 신체 담론을 재인식하게 한다(서승미, 2004). 또한 이 작품은 복면형태의 가발을 쓴 마르지엘라의 작품(그림 16)과 형태적인 관계성을 엿볼 수 있다(이태경, 최정화, 2018). 메종 마르지엘라 컬렉션에 나타난 마스크의 특성은 완벽하게 얼굴을 가리는 투구형의 전면 마스크(face mask)를 이용해 이목구비를 얼굴에서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제외시키거나, 변형된 부분 마스크의 형태로 표현하여 인체를 왜곡하고 모순되게 표현하여 인체를 새롭게 해석하였다. 얼굴에 눈코입이 없거나 눈만 표현하여 순간적 공포감과 혐오감을 주는 희열감으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통해 인간 내면의 양면성을 표현하였다. 즉 메종 마르지엘라 컬렉션에 나타난 마스크는 인간 내면에 대한 통찰을 외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로 이를 통하여 외면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을 향해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메종 마르지엘라가 가지는 정체성을 마스크를 통해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반미선, 노윤선, 2017). 또한 보워리의 독특한 캐릭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복면형의 프릴 마스크는 월터 반 베이렌돈크(Walter Van Beirendonck)의 작품에서 구름을 캐릭터화한 복

면형의 급진적인 마스크(그림 17)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그의 패션 퍼포먼스에 등장한 스타일은 급진적인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커다란 영감을 주며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인츠-휠스만(Heinz-Hulsmann)은 마스크의 개념은 불안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정체성과 차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유럽정보문화센터, 2003)이라고 하였다. 레이 카와쿠보의 2012 F/W 컬렉션 작품(그림 18)은 웨딩드레스를 테마로 하여 아방가르드한 기괴한 드레스와 함께 흰 코사지 마스크는 상어를 연상케하며 레이스 베일 또한 장례식장의 섬뜩함이 느껴진다. 이것은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의 마스크로 인간의 정체성과 차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하이브리드 정체성과 같은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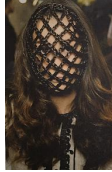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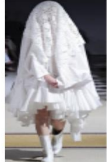
마스크에 대해 엘리자베스 톤킨(Elizabeth Tonkin)은 마스크는 힘을 표현하는데 집중된 수단이 될 수 있다(Tonkin, 1979)고 주장하였으며, 오토 비할리 메린(Oto Bihalji Merin)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변형시키기 위한 변화무쌍한 능력의 상징이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마법적 도구(Bédouin, 1961)이며, 사회적 정체성, 계층, 성 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일탈과 해방의 카니발적인 정신을 내포하는 상징적 도구라고 하였다. 마스크는 자아(ego)와 원형(archetype) 사이에서 교환의 매개, 에너지의 변형자가 된다. 그러므로 전통사회의 사람은 사회를 둘러싼 금기를 발견하고 힘이라는 오브제로 마스크를 인식한다(김보영, 2002). 또한 마스크는 착용자의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하여 자율권이 부여된 구조로 복식 개념을 확대한다(Warwick & Cavallaro, 1998)고 하였다. 마스크를 쓴 의복은 착용자가 초자연적인 능력과 보조 장치에 연결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이 사회가 숨기려고 하는 성의 한 측면을 표현하기 위해 마스크의 충격적 이미지요소를 나타내는 패션 디자이너들로는 Gareth Pugh, Ricardo Tisci, Rick Owens, Sibling, Thierry Mugler, Alexander McQueen, Aitor Throup, Zandra Rhodes, 그리고

Walter van Bierendonck가 있다(Needham, 2014).

이들 중 가레스 퓨의 초기 컬렉션인 2005년 F/W 컬렉션과 2007년 S/S 컬렉션에서 공기와 눈구멍이 있는 풍선 김프 마스크(ballon gimp mask)에 얼굴이 없는 모델의 흑백 캐시미어 드레스 및 모델이 등장했다. 가레스 퓨의 2016년 S/S 컬렉션 모델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실제 얼굴은 완전히 식별 할 수 없었다. 마스크의 특징인 것처럼, 그들은 광경을 멀리하고 소외된 공기, 소외와 해탈, 머리카락 역시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상적인 이마, 광대 스타일 뒤에 밝은 색의 충격을 주었다. 가레스 퓨의 2016 F/W 컬렉션(그림 20)에서는 한니발 렉터(Hannibal Lector)의 마스크(그림 19)가 등장했다. 마스크는 디자이너들에게 종종 영감의 원천으로 언급되어 왔다. 렉터를 비롯한 배트맨(Batman) 또는 캣우먼(Catwoman) 등과 같은 많은 영화들은 또한 마스크의 두드러진 시각적 영향에 의존해왔다. 마스크는 공포와 비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포함하고 있지만 토머스 해리스(Thomas Harris)의 〈양들의 침묵(The Silence of the Lambs)〉(1991)에서 주인공이자 연쇄살인범인 한니발 렉터의 경우 섬유유리 마스크(fiberglass mask)는 인간에 대한 렉터의 육체적 욕구에 대항하는 보호장치로 작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니발 렉터의 마스크와 함께 모델은 맞춤형 슈트, 맞춤 재킷, 펜슬 스커트, 가죽 장갑 및 액세서리로 비행사 선글라스와 함께 전후 패션을 연상시키는 촘촘한 오버사이즈 시폰 코트와 뺏힌 모양의 옷을 착용했다. 이것은 젠더를 파괴하고 마스크, 슈트, 의상으로 재구성된 포스트휴먼(posthuman) 젠더, 신체를 넘어서는 젠더, 인간을 넘어서는 젠더,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디자이너와는 달리 윌터 반 베이렌동크는 1980년대 초반부터 패티쉬 패브릭, 동성에 코드, 관습,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한 캣워크 충격 소품이 아닌 거의 신화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마스크에 중점을 두고 가학 피학애성(Sadomasochistic: SM)과 패티쉬 의상의 힘을 탐구해 왔다. 그는 SM 문화 안팎에서 마스크 착용자를 감추고 변형시키기 위해 마스크의 문화적 힘을 탐구하는 데 자신을 바친 단 한 명의 디자이너이다. 베이렌동크의 작업에서 젠더와 섹

〈표 2〉 패션에서의 마스크의 의미

메시지 유형	마스크의 의미	마스크 형태 및 사례 디자인
	<p>패션산업 시스템에 대한 도전</p> <p>쿠튀르 패션을 비판하는 패션의 정체성을 표현</p>	 <p>〈그림 11〉 Viktor & Rolf, face mask, 2006 F/W (출처: Fashion & Accessories (p.166) Baan et al., 2007, Arnhem: ArtEZ Press.)</p>
	<p>모호한 성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개념의 신체를 표현</p>	 <p>〈그림 12〉 Rei Kawakubo, half mask, 2006 F/W (출처: http://www.firstview.com.)</p>
		  <p>〈그림 13〉 Maison Martin Margiela, face mask, 2008 S/S (출처: http://www.firstview.com.)</p> <p>〈그림 14〉 Martin Margiela, Face mask, 2009–10 F/W (출처: http://www.firstview.com.)</p>
<p>인체의 재정의</p> <p>인간내면에 대한 통찰을 통해 새로운 인간의 정체성 표현</p>		   <p>〈그림 15〉 Leigh Bowery, Look 10, face frill mask, 1989. (출처: Experimental Fashion-Performance Art (p.65) Granata, F., 2016, London.New York: I. B. Tauri Academic Studies.)</p> <p>〈그림 16〉 Martin Margiela, face mask, 2009 S/S (출처: http://www.firstview.com.)</p> <p>〈그림 17〉 Walter Van Beirendonck, face radical mask, 2012 S/S (출처: http://www.firstview.com.)</p>
		  <p>〈그림 18〉 Rei Kawakubo, corsage mask, 2012 F/W (출처: http://www.firstview.com.)</p>

메시지 유형	마스크의 의미	마스크 형태 및 사례 디자인
인체의 재정의	하이브리드 정체성과 같은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	 
		<p>〈그림 19〉 Hannibal Lector, fiberglass mask, 1991 (출처: http://www.google.co.kr/)</p> <p>〈그림 20〉 Gareth Pugh, gimp mask, 2016 F/W (출처: Critical Fashion Practice: From Westwood to Van Beirendonck (p.206) Geczy, A., & Karaminas, V. 2017, London, New York: Bloomsbury Academic.)</p>
		 
		<p>〈그림 21〉 Robert Mapplethorpe, Leather Mask, 1980 (출처: Needham G. (2014), p.152.)</p> <p>〈그림 22〉 Walter van Beirendonck, Gimp mask, 2012 F/W (출처: Critical Fashion Practice: From Westwood to Van Beirendonck (pp.215, 216) Geczy, A., & Karaminas, V. 2017, London, New York: Bloomsbury Academic.)</p>

슈얼리티의 경계에 관한 질문이 자주 발생한다. 마스크, 체인, 가죽 벨트 및 칼라와 같은 SM의 도구는 종종 자신의 모델을 스타일링하고 표준 정체성 고정 관념에 도전하는 젠더 및 섹슈얼리티에 중심의 영역을 위해 컬렉션에 사용된다. 베이렌동크는 패션을 안전한 성생활, 환경 및 인종 차별과 같은 중요한 사회 문제에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한다(Geczy & Karaminas, 2017). 특히 베이렌동크의 2012 F/W 남성복 컬렉션 〈Lust Never Sleeps〉은 식민지의 하위 텍스트에서 SM, voodoo masks 및 파푸아 뉴기니(Papua New Guinean)의 방패에 대한 참조로 전통적인 테일러링을 전복했다. 검은 모델들은 쇠사슬이 달린 지팡이를 들고 목에 자물쇠를 두른 채 영국식 중산모 모자, 장갑, 백인 피부를 흉내 내기 위해 만든 엘라스토플라스트(elastoplast) 소재의 핑크색으로 만든 킴프 마스크(그림 22)와 밝은 색의 수트를 입고 패션쇼에서 행진했다. 베이렌동크는 킴프 마스크를 이용하여 그로테스크의 본질을 드러내고 특정인물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정정희, 임은혁, 2020). 이 컬렉션은 원주민 문화와 관련된 식민지 담론에 관심을 기울였으

며 1980년대에 사진작가 로버트 메이플소프(Robert Mapplethorpe)를 만난 이후 베이렌동크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메이플소프의 Leather Mask(1980)〈그림 21〉와 같이 메이플소프는 벌거벗은 흑인 남성 바디를 패티쉬화하고, 그것을 추상화하고, 백인 남성 시선에 특권을 부여하는 시각적 표현을 통해 수동적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와 같이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화에 따라 의미가 바뀌고 진화하며 끊임없이 진전된다. 베이렌동크는 인간이면서 동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본질 주의적 개념의 타당성에 도전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정체성을 생산하기 위해 인간, 동물 및 외계인을 섞었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은 문화와 정체성의 기존 한계와 경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의미를 재해석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여러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상의 패션에서 마스크의 의미를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는 패션에서의 마스크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한 마스크를 통해 보여주는 패션에서 자신의 작품을 통해 담아내고 싶었던 것은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하나의 조형적 대상으로서의 옷으로, 이는 패션이 단순히 한순간에 지나가는 상업적 대상이 아니라 시대와 사상을 담아내는 하나의 현상학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패션은 인간의 역사, 사회, 문화를 담아내는 대상으로서 인간의 철학과 이상을 표출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마스크는 인간욕망이 구체화된 대상이다. 패션에서의 마스크 안에는 패션디자이너의 개인적, 사회적 욕망이 담겨 있다. <Vogue Korea>의 진 크렐(Gene Krell)이 언급하였듯이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이 주목한 마스크에 대해 새로운 여성상이라 하였다. 또한 마스크는 신비로움과 연결되며 그것은 파워풀한 여성을 의미하며 호기심과 함께 공포감까지 준다고 하였듯이 결국 마스크란 우리의 욕구를 표현해 주는 현재의 삶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취하는 우리 삶의 이상적인 이미지이다. 결국 내가 아닌 타자(the other)가 되어 시대의 바람이나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마스크를 매개체로 하여 표현하고 있다.

패션에서의 하나의 매개체로서 마스크의 의미 분석을 한 결과 첫째, 패션에서의 마스크는 패션을 통해 쿠티르 패션을 비판하면서 패션의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둘째, 하나의 신체에 의복의 안과 밖, 여성과 남성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는 비논리적이고 모호한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개념의 신체를 의미하고 있다. 셋째, 마스크는 인간 내면에 대한 통찰을 외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로 이를 통하여 외면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을 향해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새로운 인간의 정체성을 마스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넷째, 중요한 사회 문제에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경계에 관해 질문하면서 하이브리드 정체성과 같은 다양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패

션디자이너로서 디자이너가 의도하는 패션메시지 전달에서도 효과적인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테크놀로지 사회를 묘사하고 직접적이고 파워풀하게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 문화적 기호로서 작용하며 또 다른 자아를 드러나게 하는 패션 아이템으로서 정체성의 성찰을 통한 휴먼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마스크는 인간의 욕망이 구체화된 실제적 대상으로서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넘나들며 현실과 이상을 모두 경험하게 하고, 패션이 추구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표현 욕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즉 패션에서의 마스크는 현대인의 다양한 삶과 욕망을 표현하는 하나의 장이며 하나의 문화를 형성함과 동시에 디자이너의 창작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더불어 패션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미적 가치관이나 자아확인과 함께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기술·예술양식 등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인간의 내적 이미지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예술을 한다’는 것은 ‘표현을 하는 것이다’로 전제되며 예술작품이 자신의 내부에서 감성과 이미지를 생성해 내고 밖으로 표현해 내는 것이듯 마스크 또한 이러한 행위이다. 마스크는 마스크 자체의 물적 조건, 즉 우리가 바로 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각여건의 결과이다. 그러나 인간의 창조적 상상력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디자이너에게 패션에서의 마스크는 기성의 낡은 이미지에의 고착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매개물이며 인간의 내면세계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기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메시지 중심의 패션과 패션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하였다는데 그 한계점이 있으나 연구를 통해 분석된 마스크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여 현대인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독창적인 패션디자인 전개와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점에 의미를 가진다.

참고문헌

- 김형기, 안소현, 이호경, 고호상, 이영임. (2005). *가면과 욕망(지구 지역시대의): 문화의 얼굴: 독일어권 지역의 문화연구*. 서울: 연극과 인간.

- 김흥기. (2008). *샤넬 미술관에 가다-미술 속 패션 이야기*. 고양: 미술문화.
- 김선영. (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가면의 형태와 특성. *복식*, 58(4), 13-25.
- 김정윤, 염미선. (2018). 패션마스크 디자인 개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8(3), 135-151.
- 김순자. (2016). 모호성의 관점에서 본 마틴 마르 지엘라 패션디자인 특성. *한국의상디자인학회*, 18(2), 191-206.
- 김경희, 이옥희. (2002). 무용가면의 상징성 연구. *복식문화연구*, 10(4), 404-418.
- 김찬주, 노미경. (2009). 아웃도어 라이프 활성화를 위한 페이스 커버 개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9(1), 47-59.
- 김보영. (2002). *배우 훈련에 있어서 가면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현주. (2017). 무슬림 여성들의 가리개, 히잡에 관한 연구. *한국네트디자인학회* 15(3), 95-106.
- 남수정. (2004). *20세기초 미술에 나타난 아프리카 원시 조각의 영향에 관한 고찰: 마티스, 피카소, 브라쿠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정아. (2004). *축제인류학*. 서울: 살림출판사.
- 문나리. (2009). *제임스 앙소르(James Ensor) 회화의 풍자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반미선, 노윤선. (2017). 메종 마르시엘라 컬렉션에 나타난 마스크의 해체주의적 특성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 89-90.
- 박진희. (2008). *패션쇼에 나타난 페르소나 아이템의 특성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진영. (2010). *시선과 페르소나를 통한 자아 표현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승미. (2004).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조형성의 텍스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상희. (2018). 대기 환경이 미치는 제품디자인에 관한 분석: 황사마스크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4(2), 335-345.
- 신세정. (2004).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를 통한 자아표현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우성. (1999). *탈*. 서울: 대원사.
- 쑤상하오(蘇上豪). (2017). *새부리 가면을 쓴 의사와 이발소 의사(김성일 역)*. 서울: 시대의창.
- 엄세인. (2005). *가면 이미지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하나. (2015). *성격가면을 활용한 역할 창조 접근법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아정. (2018). *아름다운 것들의 역사*. 서울: 에이엠스토리(amStory).
- 유럽사회문화연구소. (2006). *축제문화와 제현상-축제의 이론적 정립과 새로운 축제 모형 창출을 위한 학제적 접근*.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유럽정보문화센터. (2003). *유럽의 축제 문화*.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이태경, 최정화. (2018). 현대 패션에 영향을 끼친 퍼포먼스 아티스트 작품의 페르소나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9(5), 585-599.
- 이은정. (1990). *한국 가면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효빈, 김지민. (2020). 성인용 보건 마스크의 형태별 구조 및 디자인 분석. *패션과네트*, 18(3), 91-93.
- 임형란. (2004). *가면(MASK)을 활용한 의상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형란, 이미숙. (2004). 가면(mask)을 활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패션비즈니스*, 8(2), 154-167.
- 임경순, 유송옥. (1997). 샤넬의 커스텀 주얼리에 관한 연구. *복식*, 32, 45-56.
- 전경옥, 김영훈. (1999). *재미있는 가면이야기(세계마스크 대전 도록)*. 서울: (주)MBC문화방송, (주)대생기업.
- 전경옥. (2017). *세계의 가면문화-주술. 상징. 예술*. 서울: 민속원.
- 지구촌민속박물관. (2007). *지구촌 얼굴*. 서울: 지구촌민속박물관.
- 장애란. (2002). Hussein Chalayan의 실험적 디자인. *한국복식학회*, 52(5), 91-107.
- 정봉기. (2003). *아프리카 조각의 프리미티브를 중심으로: 작품 발표를 통한 조형세계*.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병훈. (2013). *사람들은 왜, 가면 뒤에 숨는가?*. 서울: 씨엘북스(CLBooks).
- 정정희, 임은혁(2019a). 크리티컬 패션에 관한 고찰.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1(5), 540-551.
- 정정희, 임은혁(2019b). 크리티컬 패션에 표현된 패션산업 시스템과 패션소비문화에 대한 비평

- 적 메시지.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1(6), 717-729.
- 정정희, 임은혜(2020). 크리티컬 패션의 비평적 메시지 유형.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2(2), 87-103.
- 조희선. (2001). '억압'과 '저항'의 기제로서의 이슬람 여성의 베일(veil)과 히잡(hijab). *한국중동학회*, 22(1), 103-126.
- 최정화. (2015). 패션 마스크에 나타난 캐릭터 이미지의 유형과 활용의미. *기초조형학연구*, 16(3), 571-582.
- 최정화. (2013). 보호용 기능성 마스크를 응용한 패션 마스크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5(6), 851-861.
- 최은하. (2006). *우리가면을 통한 자아의 내면 표현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아. (2020). 유럽문화사에 나타난 가면과 정체성의 관계 연구(1). *한국해세학회*, 44, 187-212.
- 최은수. (2001). *유럽지역의 민속 축제 연구-독일 어권 국가의 가면 놀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1997). *패션전문자료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소.
- 한지연, 정경연. (2015). 예술과 패션에 나타난 마스크 디자인의 조형성 비교. *디자인학연구*, 28(1), 113-131.
- Anawalt, P. R. (2009). *세계 복식 문화사-세상 모든 스타일의 기원에 관한 기록*(한국복식학회 역). 서울: 위즈덤하우스.
- Atopos., Zidiankis, V., Polhemus, T., & Duggan, G. G. (2011). *Not a toy: Radical character design in fashion and costume*. Berlin: Pictoplasma.
- Bédouin, J. L. (1961). *Les Masques*. French Editions: Paris.
- Baan, E. D., Berg, N. V. D., Donath, J., Liu, C. M., Elzingre, M., Gomes-Koizumi, A., Koning, G., Lipovetsky, G., Marchette, L., Mulder, A., Richard, B., Schacknat, K., Smelik, A., Teunissen, J., Unger, M., Viallon, V., & Vos, M. (2007). *Fashion & Accessories*. Arnhem: ArtEZ Press.
- Bonnie, E. (2011). *Japanese fashion designers-The Work and Influence of Issey Miyake, Yohji Yamamoto and Rei Kawakubo*. London, New York: Berg.
- DeWitte, D. J., Larmann, R. M., Larmann., & Shields, M. K. (2017). *케이트웨이 미술사-미술의 요소와 원리. 매체. 역사. 주제-미술로 들어가는 4개의 문*(조주연, 남선우, 성지은, 김영범 역). 파주: 이봄.
- Francesca, G. (2016). *Experimental Fashion-Performance Art, Carnival and the Grotesque Body(Dress Cultures)*. London, New York: I. B. Tauri Academic Studies.
- Geczy, A., & Karaminas, V. (2017). *Critical Fashion Practice: From Westwood to Van Beirendonck*. London,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 Kawamura, Y. (2004). *The Japanese Revolution in Paris Fashion*. Oxford, New York: BergPublishers.
- Miller, S B. (1999, December 02) *The Gallery: Cross-Cultural Disguises* Retrieved June 14, 2013, from <http://www.wsj.com/articles/SB9440970202371704>
- Mack, J. (2000). *마스크-투탄카맨에서 할로윈까지* (윤길순 역). 서울: 개마고원.
- Needham, G. (2014). Bringing out the Gimp: Fashioning the SM Imaginary. *Fashion Theory The Journal of Dress, Body and Culture*, 18(2), 149-168.
- Nunley, J. W., McCarthy, C., Emigh, J., & Ferris, L. K. (1999). *Masks: faces of culture*. New York: Harry N. Abrams.
- Pollock, D. (1995). Masks and the Semiotics of Identity. *Th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1(3), 581-597.
-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 (2009). *Maison Martin Margiela*. NY: Rizzoli.
- Tonkin, E. (1979). Masks and Powers. *Man (N.S.)* 14(2), 237-248.
- Twist, K. V. (2005). *Hussein Chalayan*. Rotterdam: NAI Publishers.
- Toscani, O., & Saillard, O. (2009). *Workwear: Work fashion seduciton*. Venezia: Marsilio.
- Warwick, A., & Cavallaro, D. (1998). *Fashioning the Frame: Boundaries, Dress and the Body*.

Oxford: Berg.

Tseëlon, E. (2001). *Masquerade and identities: essays on gender, sexuality, and marginality*. New York: Routledge.

Tseëlon, E., Burton, L., & Crane, D. (2014). *Fashion as masquerade: critical studies in fashion & beauty*. Bristol, Chicago: Intellect Books.